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의 학부모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about E-books in Libraries

정 연 경(Yeon-Kyoung Chung)**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개 도서관의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컴퓨터 이용, 전자책 이용 행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 행태, 어린이 전자책 선정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123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홍보와 이용 교육, 이용하기 편리한 전자책 이용 과정, 도서관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의 인지, 전자책 전달 사서와 전문 교육과정의 준비,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parents about e-book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library e-book services. A user survey of one hundred twenty parents is carried for library use, computer use, and e-book user / non user behavior, library e-book service evaluation, selection of children's e-books and so on. Based upon the results, proactive library e-book service promotion such as public relations and e-book user education, easy access to e-book collections, recognition of e-book services at libraries, positions for e-book librarians and their 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n, and self-evalu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키워드: 전자책, 학부모, 이용자 인식,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어린이 전자책, 독서, 전자책 시장, 전자책 콘텐츠
E-book, Parents, User Perception, Library E-book Service, Children's E-book, E-book Reading, E-book Market, E-book Contents

* 본 연구는 2011년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원한 연구과제 "독서매체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의 내용 중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ykchu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9월 6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사람들의 읽는 행위가 종이 매체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전자책이 그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갈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미국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4,400만 달러 수준 이하였던 시장이 2009년 1억 6,500만 달러, 2010년에는 4억 3,900만 달러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배경제 2011). 또한 전자책 판매는 전년도 대비 169%가 증가한 반면, 종이책은 24.8%가 감소했다고 한다(장기영 2011). 이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전자책 시장은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량이나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 모두 외국에 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 말까지 스마트 폰은 2,500만대 수준, 태블릿 PC는 2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므로 내년에는 약 1000억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아이티투데이 2011, 8월 8일).

이렇듯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도서관도 새로운 독서 매체인 전자책을 주요 정보 자원으로 간주하고, 웹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자책에 대

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도서관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전자책 인지도와 전자책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전자책과 전자책 시장,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먼저 전자책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전자책의 의미,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의 독서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독서 습관과 읽은 책의 내용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형성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조력자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부모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독서나 학습에 자극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런 가정환경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나 독서 습관, 전자책에 대한 인식도가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 행태나 독서 습관, 전자책의 활용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전자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이 도서관의 다른 이용자 계층보다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 도서관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나 자료실 중에서 전자책 소장 비율이 높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립도서관 1곳, 공공도서관 1곳, 공립초등학교 도서관 1곳과 사립초등학교 도서관 1곳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 직접 전자책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사이트로만 연결해주는 공공도서관 1곳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각 도서관에 30부의 설문지, 총 150부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배포하여 123부(82%)를 회수하였고 도서관의 이용 횟수, 홈페이지 이용, 컴퓨터 이용, 전자책 인지도 및 이용 행태, 어린이 전자책 선택 기준 등으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책과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자책이 가져올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역할을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함께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전자책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lkert(2009)는 O'Reilly의 이용자 2,000명에게 전자책의 선호도와 구입 습관에 대해 조사하여, 독서 매체로서 전자책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성이고 전자책 이용 기기는 여전히 개인용 컴퓨터임을 밝혔다. Chief Officers of State Library Agencies

(2010)는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의 역할과 의미를 조망하기 위해 도서관장과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전자책 수서, 검색, 저작권, 표준화, 서비스 및 공간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Hellen(2010)은 독서 매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서관이 최적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이 혁신과 경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만 취한다면 문화적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Library Journal(2010)은 대학·공공·학교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전자책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대학도서관이 가장 활발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순이었다. 전자책 단말기 대출은 일부 도서관만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대출을 고려 중인 도서관이 많아 향후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연구로 남태우와 김진아(2003)는 전자책의 출현 배경과 특성,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기능과 문제점, 이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 변화를 고찰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실태와 문제점,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동규와 박상호(2005)는 전자책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전자책 이용과 전자책 구입 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장혜란(2006)은 A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책 인식과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생산의 다양화, 교육,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황금숙(2006)은 초등학교 어린이 8명을 대상으로 종이책 대

비 전자책의 독서 효과가 별 차이가 없음을 규명하고, 독서 매체로서의 활용성을 강조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현희와 강다혜(2008)도 8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독서 효과를 조사하고, 인터페이스와 기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전자책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진한과 박일중(2007a; 2007b)은 먼저 대구·경북 지역의 전자책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어린이전자책 사이트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 전자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수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효선(2008)은 대전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책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정진한(2009)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대출 기록 분석을 토대로 전자책 서비스의 비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고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경아(2010)는 국내 24개 어린이도서관의 전자책 제공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용준(2010)은 한국 전자책 시장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를 통해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여전히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정종원(2010)은 대학생의 전자책 이용실태 변화를 통해 전자책 이용이 오히려 퇴보되었으며 전자책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자책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구모니카(2011)는 대학생들의 전자책 이용이

낮은 이유를 콘텐츠 수급의 불균형으로 보고, 출판사 입장에서 종이책과 차별화된 전자책 서비스 정책이 개발되어야하고, 전자책의 소유권 인정과 전자책 서비스 범위 미설정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영준과 최성은(2011)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전자책 콘텐츠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혜(2011)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신정환(2011)도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전자책의 생산 주체, 이용을 위한 플랫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책 서비스의 비활성화 요인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배경재(2011)는 도서관만큼 책과 독자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전자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만한 곳은 없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장기영(2011)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도서관은 기존 패러다임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책 환경을 다스리고 주도할 수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연경(2011)은 전자책을 거대한 지적 공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보고 전자책의 활성화가 책 읽는 환경의 다양화와 독서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와 출판업계와 인터넷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국내 전자책에 대한 연구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전자책 서비스 현황 파악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집단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독서 증진은 물론, 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자책과 도서관

2.1 전자책의 의미

전자책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인 e-book이나 Digital Book으로 불린다. 흔히 전자책이라 하면 크게 콘텐츠를 지칭하는 디지털 책과 디지털 책을 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인 전자책 단말기를 모두 의미한다(이재현 2010).

『Being Digital』(1995)이란 책의 저자이며 MIT Media Lab의 창시자이자 기술 전도사로 유명한 Nicholas Negroponte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종이로 만든 물리적 형태의 책은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Thibaut 2010).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Amazon의 Jeff Bezos는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된 유료 전자책 판매량이 종이책을 앞섰다고 2011년 5월 1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 Amazon의 전자책 판매 성장률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판매량만 따지면 지난 4월부터 종이책 100권이 팔리는 동안 전자책은 105권이 팔리고 있다(Miller & Bosman

2011). 여기에 Apple의 iPad와 iBook Store라는 거대한 플랫폼, Google이 곧 출시할 Google Editions를 감안해보면, 출판업계는 기술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앞으로 태블릿 PC와 스마트 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전자책의 대세는 거의 확실하다.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종이책과는 달리 다수의 책을 항상 휴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전자책은 책을 직접 읽으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며, 동화책의 삽화를 직접 색칠하거나 관련된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글씨의 크기를 조절하고, 자동으로 다시 읽을 부분부터 백라이트를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다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자책은 종이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점들이 있다. 게다가 전자책 단말기와 전자책 콘텐츠는 종이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종이책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서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정연경 2011).

2.2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책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도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의 이용률은 성인이 11.2%, 학생은 43.5%로 나타나 작년 대비 성인은 2배, 학생은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의

이용은 젊은 세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독서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전자책 서비스 요구에 맞춰 국내 700여개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에 회원 가입 후, 해당 도서관이 사용하는 전자책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아 접속하면 전자책을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없어도 전자책의 대출, 반납과 읽기가 가능해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독서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이 없는 도서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정연경 2011).

그러나 이정혜(2011)는 고가의 전자책 및 콘텐츠 공급 가격, 신간 전자 자료의 부족, 플랫폼 연동 및 확장성의 부족과 장애인 이용 콘텐츠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신정환(2011)은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가공이 필요하고 자료 이용에 있어서 편리함, 확장성, 연동성을 위한 표준 플랫폼의 개발과 출판업계의 참여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도서관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에게 전자책 단말기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및 전자책 전용 공간 설치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한다(정연경 2011).

3. 전자책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

3.1 조사 대상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5개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문문에 참여한 학부모 이용자로 제한하였다. 도서관 선정 기준은 전자책 소장 비율이 높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서대문구에 소재한 국립 초등학교 도서관과 사립 초등학교 도서관, 전자책을 전혀 소장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으로 하였다(〈표 1〉 참조).

각 도서관에 30부의 설문지, 총 150부를 배포하여, 123부(82%)를 회수하였고 연구 내용은 학부모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학부모의 도서관 방문 횟수, 자녀 동반 여부, 도서

〈표 1〉 연구대상 도서관의 유형 및 명칭

유형	도서관명	장서 수*	전자책 수
국립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305,825	4,315
공공도서관어린이실	과주교하도서관	34,423	0
어린이전문도서관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238,408	1,479
사립초등학교도서관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36,230	1,860
국립초등학교도서관	서울대신초등학교	13,000	462

* 국립 및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실 장서 수, 어린이전문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전체 장서 수를 기재하였음.

관 홈페이지 이용 횟수,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소유 여부,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유무, 향후 전자책 이용 가능성, 전자책 경험자에 대한 이용 경로 및 이용 빈도, 이용 권수, 이용 시간, 독서량과 선호 매체, 전자책과 종이책의 장단점, 전자책 검색 방식,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 어린이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선정 주제, 기준, 전자책 독서 분야 등이었다.

3.2 조사 결과

3.2.1 응답자 일반 사항

학부모 응답자의 연령은 27세에서 50세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37.91세였다. 자녀는 1명에서 3명을 두어 평균 1.67명이었다. 한 달 평균 독서량은 1권에서 50권까지 편차가 심하였다. 학력은 대졸(76명, 61.8%) > 대학원 이상(24명, 19.5%) > 고졸(14명,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대부분이 주부(91명, 74.0%) > 직장인(14명, 11.4%) 순이었다(〈표 2〉 참조). 도서관에는 자녀와 함께(77명, 62.6%) > 혼자(22명, 17.9%) 오는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를 둔 주부들이 동반 가능한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2.2 도서관 이용 빈도

학부모 응답자의 한 달 평균 도서관 방문 회수는 4회(24명, 19.5%)로 가장 높았으며, 2회(20명, 16.3%) > 3회(13명 10.6%) 순으로 최소 1회에서 최대 25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평균 5.47회였다.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회수는 한 달에 3-4번(26명, 21.1%) > 2-3달에 1번(23명, 18.7%) > 일주일 1-2번(22명, 17.9%) 순으로 나타났다.

3.2.3 전자 매체 소유와 일일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학부모가 79명(64.2%), 없는 경우가 41명(33.3%)에 달했고,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은 30분 이하(42명, 34.1%) > 30분-1시간(35명, 28.5%) > 1-2시간(22명, 17.9%) 순이었다.

3.2.4 전자책 비이용자의 인지도 및 이용 가능성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학부모가 63명(51.2%),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54명(43.9%), 무응답이 6명(4.9%)으로 과반수가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전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63명의 비이용 이

〈표 2〉 응답자 일반 사항

항목	빈도	비율(%)	항목	빈도	비율(%)
고졸	14	11.4	주부	91	74.0
대졸	76	61.8	직장인	14	11.4
대학원이상	24	19.5	자영업	3	2.4
기타	1	0.8	기타	7	5.7
무응답	8	6.5	무응답	8	6.5
합계	123	100.0	합계	123	100.0

유로는 종이책이 사용하기 더 익숙하고 편하다(40건, 63.5%) > 눈이 피곤하다(24건, 38.1%) > 전자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와 전자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각 15건, 각 23.8%) 순이었다(〈표 3〉 참조).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63명의 학부모에게 앞으로 전자책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용을 고려해보겠다(32명, 50.79%), 좀 이용해보겠다(19명, 30.16%) 순으로 향후 이용 가능성은 있으나, 소극적이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표 4〉 참조).

전자책 이용 경험과 상관없이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른다(59명, 48.0%), 잘 알고 있다(51명, 41.5%) 순이었지만, 모르는 경우가 전혀 모른다(5명, 4.1%)를 포함하여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3.2.5 이용 경로 및 목적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5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책 이용 경로와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로는 국내 전자책 사이트(교보문고, 알라딘, 북토피아, 북큐브, 인터파크, 북토비 등)가

〈표 3〉 전자책 비이용자의 비이용 이유(*복수응답)

항목	빈도	비율(%)
전자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	15	23.8%
전자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15	23.8%
전자책은 읽기가 불편하다	9	14.3%
전자책을 보면 눈이 피곤하다	24	38.1%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사용하기 익숙하고 편하다	40	63.5%
전자책은 이용 방법이 까다롭고 싫다	4	6.3%
전자책 이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쉽게 잊어버린다	7	11.1%
보고싶은 책이 전자책 사이트에 없다	3	4.8%
전자책 이용 사이트를 모르고 찾기 어렵다	14	22.2%
전자책을 읽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과 그 과정이 번거롭다	12	19.0%
종이책으로 읽어야 독서하는 것 같다	13	20.6%
기타	4	6.3%
합계	*160	*254.0%

〈표 4〉 전자책 비이용자의 전자책 이용 가능성

항목	빈도	비율(%)
지금부터라도 적극 이용하겠다	1	1.59%
좀 이용해보겠다	19	30.16%
이용을 고려해보겠다	32	50.79%
이용할 것 같지 않다	10	15.87%
무응답	1	1.59%
합계	63	100.00%

14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9명, 16.7%), 외국 인터넷 서점 사이트(7명 13.0%)였다(〈표 5〉 참조).

학부모의 전자책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 생활 및 독서(23건, 43.4%) >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13건, 24.5%) > 새로운 정보 획득 또는 학습(12건, 22.6%) 순이었고, 자녀의 학교 숙제나 과제(3건, 5.5%), 일상적인 문제 해결(1건, 1.8%), 기타(2건, 3.7%)는 매우 빈도가 낮았다.

3.2.6 이용 빈도 및 종수, 독서 시간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빈도는 1년에 1-2회(18명, 33.3%) > 6개월에 1-2회(13명, 24.1%) > 월 1-2회(11명, 20.4%) 순이었다. 다음으로 주 1-2회(7명, 13.0%) > (최근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3건, 5.6%) > 거의 매일(2명,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 빈도는 학부모가 전자책을 주요 독서 매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간 전자책 이용 권수는 0권에서 50권까지 편차가 심했으며 3권 이하가 61.1%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시간은 1시간 이하(39명, 72.2%) > 1-2시간(10

명, 18.5%) 순이었다.

3.2.7 독서량 변화와 선호 매체

전자책 이용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이후의 독서량 변화는 별 차이 없다(46명, 85.2%) > 더 많이 읽는다(5명, 9.3%) > 덜 읽는다(2명, 3.7%)로 매체로 인한 독서량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학부모는 독서량 증가의 원인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전자책과 종이책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데 두었다.

전자책에 대한 선호는 3명(5.6%)에 불과하였고 종이책(39명, 72.2%)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자책을 선호한 학부모는 '전자책 이용이 더 편리하다(2건)', '종이책보다 가격이 저렴하다(2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다(1건)', '컴퓨터나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흥미롭다(1건)'를 그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종이책을 선호한 학부모는 '종이책이 더 익숙하다'가 가장 높은 요인이었으며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된다(13건) > 원하는 책의 종류가 더 많다(4건) >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3건) 순이었다.

〈표 5〉 전자책 이용 경로

항목	빈도	비율(%)
학교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	6	11.1
공공도서관 사서 또는 홈페이지	9	16.7
국내 전자책 사이트	14	25.9
외국 인터넷 서점 사이트	7	13.0
포털 서비스	6	11.1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이용 경험	6	11.1
무응답	6	11.1
합계	54	100.0

3.2.8 활용 기기 및 이용 요인

전자책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로는 개인PC/노트북 30명(55.6%) > 스마트폰 8명(14.8%) > 태블릿PC 5명(9.3%) 순으로 전자책 전용기와 도서관 PC는 각각 1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순위는 화면 구성(18명, 33.3%) > 내용의 질(15명, 27.8%) > 신간도서(13명, 24.1%) 순이었으며, 2순위는 내용의 질(16명, 29.6%) > 화면 구성(14명, 25.9%), 3순위는 화면구성과 프로그램 부가 기능(각 10명, 18.5%)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화면 구성 > 콘텐츠 질 > 신간 도서 순으로 콘텐츠 질보다 화면 구성이 전자책 이용에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표 6> 참조).

3.2.9 전자책 이용 방식과 탐색 방법

전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13명, 24.1%)와 전자책 전용기기를 통해 구매(13명, 2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대

출(9명, 16.7%) >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6명,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에서 전자책 벤더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와 '스마트폰에서 구매'는 각각 2명(3.7%)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자책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검색(29명, 53.7%)이 브라우징(14명, 25.9%)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탐색 방법으로는 서명 검색(28건, 58.3%)이 가장 높았으며, 최신 도서 브라우징(16건, 33.3%), 시리즈명 검색(15건, 31.3%) 순이었다. 이에 비해 주제어 검색(10건, 20.8%), 주제별 브라우징(9건, 18.8%)이나 키워드 검색(8건, 16.7%), 저자명 검색(8건, 16.7%), 출판사명 검색(2건, 4.2%), 인기도서 브라우징(1건, 2.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3.2.10 전자책 이용의 장·단점과 사용 기능 및 이용 편의성

전자책 이용의 최대 장점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것(28명,

<표 6>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권수, 기간	2	3.7	3	5.6	7	13.0
내용의 질	15	27.8	16	29.6	8	14.8
화면 구성	18	33.3	14	25.9	10	18.5
신간 도서	13	24.1	9	16.7	7	13.0
분량	3	5.6	6	11.1	5	9.3
프로그램 부가 기능	-	-	3	5.6	10	18.5
기타	-	-	-	-	1	1.9
무응답	3	5.6	3	5.6	6	11.1
합계	54	100.0	54	100.0	54	100.0

51.9%)이었고,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13명, 24.1%)이 차지하였다. 2순위에서도 위 항목들이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검색이나 부가 기능, 최신 자료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표 7> 참조).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면으로 책을 읽는 것(27건, 54.0%)과 전자책 이용 과정 및 절차의 복잡함(24건, 48.0%),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음(17건, 34.0%)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표 8> 참조).

전자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가 기능의 사용 없이 오직

독서만 하는 응답자가 다수(27명, 50.0%)를 차지하였다. 본문 검색 기능과 북마크, 메모, 밑줄 기능은 각각 8명(14.8%)이 활용한다고 하였고, 복사, 편집, 인쇄 기능은 5명(9.2%), 글꼴, 크기, 화면 변경 기능과 사전 연결 기능을 각각 3명(5.5%)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자책이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자책의 휴대성이 가장 극대화된 이용 편의성 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책과 비교할 때 가독성과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편의성이 매우 떨어졌다(<표 9> 참조).

<표 7> 전자책의 장점

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28	51.9	13	24.1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생생하다	13	24.1	11	20.4
다양한 검색과 부가 기능이 편리하다	3	5.6	8	14.8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빠르다	4	7.4	7	13.0
절판된 자료도 전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	1	1.9	8	14.8
기타	-	-	1	1.9
무응답	5	9.3	6	11.1
합계	54	100.0	54	100.0

<표 8> 전자책 이용의 불편 사항(*복수 응답)

항목	빈도	비율(%)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	17	34.0%
읽고 싶은 자료는 항상 대출중이다	5	10.0%
기기 오류가 많다	12	24.0%
원하는 책을 검색하기 어렵다	4	8.0%
전자책 이용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	24	48.0%
화면으로 책을 읽기가 어렵고 싫다	27	54.0%
없다	1	2.0%
기타	2	4.0%
합계	*92	*184.0%

〈표 9〉 전자책의 이용 편의성

항목	항목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검색성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쉽다	30	55.6	16	29.6
이용성	종이책보다 구입이 쉬워서 좋다	30	55.6	18	33.3
	시간 활용이 유용하다	34	63.0	14	25.9
	원문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27	50.0	18	33.3
	이용방법은 매우 쉽다	27	50.0	19	35.2
가독성	원문은 읽기 쉽다	20	37.0	25	46.3
	원문의 글씨나 그림은 보기 편리하다	24	44.4	23	42.6
	종이책보다 이용하기가 쉽고 편리하다	20	37.0	28	51.9
	종이책보다 정서적으로 읽기 편안해서 좋다	5	9.3	43	79.6
휴대성	기기를 휴대하기 편해서 어디든 갖고 다닐 수 있다	40	74.1	8	14.8
	여러 책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48	88.9	-	-
부가 기능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어서 좋다	36	66.7	10	18.5
	본문의 글씨체, 크기, 화면 배색 등을 바꿀 수 있어 편리하다	38	70.4	9	16.7
	북마크, 밑줄, 메모, 본문 검색, 사전 연결 등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	41	75.9	4	7.4
기타	전체적으로 화면이 마음에 든다	16	29.6	32	59.3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26	48.1	22	40.7

3.2.11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사용 경험 및 만족도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30명(55.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19명(35.1%)을 대상으로 도서관 전자책 콘텐츠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양적 풍부함에서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그리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3점(보통)이었으며, 다른 항목들도 3점대에 그쳐서 이용자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간입수, 도서관 내 전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전자책 이용 공간 위치 및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1〉 참조).

3.2.12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추천 및 향후 이용 가능성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54명의 학부모 중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권유하겠다는 응답자가 31명(57.4%)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타진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41명, 75.9%)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서관 전자책 대출 권수는 평균 3.48권, 대출 기간은 11.12일로 조사되었다.

3.2.13 어린이 전자책의 선택 주체와 기준 및 어려운 점

자녀의 전자책을 선택할 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는 응답자가 24명(44.4%)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자녀가 직접 선택(10명,

〈표 10〉 도서관의 전자책 콘텐츠 만족도

항목	매우만족 (5점)	약간만족 (4점)	보통 (3점)	약간불만 (2점)	매우불만 (1점)	평균 점수
양적인 풍부함	1명 (5.3)	4명 (21.1)	6명 (31.6)	7명 (36.8)	1명 (5.3)	2.84
내용의 신뢰성	1명 (5.3)	8명 (42.1)	9명 (47.4)	1명 (5.3)	-	3.47
자료의 최신성	1명 (5.3)	4명 (21.1)	9명 (47.4)	4명 (21.1)	1명 (5.3)	3.00
주제의 다양성	1명 (5.3)	7명 (36.8)	6명 (31.6)	3명 (15.8)	2명 (10.5)	3.11

〈표 1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

항목	매우만족 (5점)	약간만족 (4점)	보통 (3점)	약간불만 (2점)	매우불만 (1점)	평균 점수
주제 다양성 (종류)	3명 (15.8)	4명 (21.1)	7명 (36.8)	5명 (26.3)	-	3.26
내용(질)	2명 (10.5)	7명 (36.8)	7명 (36.8)	3명 (10.5)	-	3.42
접속 경로	5명 (26.3)	6명 (31.6)	2명 (10.5)	4명 (21.1)	2명 (10.5)	3.42
사이트 디자인	3명 (15.8)	9명 (47.4)	2명 (10.5)	4명 (21.1)	1명 (5.3)	3.47
이용절차	-	10명 (52.6)	2명 (10.5)	6명 (31.6)	1명 (5.3)	3.11
신간입수	2명 (10.5)	1명 (5.3)	7명 (36.8)	8명 (42.1)	1명 (5.3)	2.74
이용 안내	-	7명 (36.8)	7명 (36.8)	5명 (26.3)	-	3.11
PC 수	1명 (5.3)	3명 (15.8)	10명 (52.6)	3명 (15.8)	2명 (10.5)	2.89
이용 공간 위치 및 크기	1명 (5.3)	4명 (21.1)	6명 (31.6)	6명 (31.6)	2명 (10.5)	2.79
전반적인 만족도	-	6명 (31.6)	7명 (36.8)	6명 (31.6)	-	3.00

18.5%), 부모가 선택(7명, 13.0%) 순이었다. 어린이 전자책 선택 기준으로는 주제/장르(23건, 54.8%), 학교 권장도서(12건, 28.6%), 도서관 추천 도서목록(8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책표지, 시리즈명, 전자책사이트추천목록은 각각 4건(9.5%)으로 부모가 자녀의 전자책을 선정할 때 매우 미미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어린이 전자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1순위

〈표 12〉 어린이 전자책에서 주된 독서 분야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림책	11	20.4	8	14.8	4	7.4
과학책	2	3.7	5	9.3	2	3.7
동화책	19	35.2	11	20.4	2	3.7
동시집	-	-	2	3.7	2	3.7
만화책	1	1.9	2	3.7	4	7.4
역사책, 전기	2	3.7	2	3.7	7	13.0
유머, 수수께끼, 괴담류	1	1.9	-	-	1	1.9
백과사전	1	1.9	3	5.6	2	3.7
학습서(문제집)	-	-	-	-	3	5.6
영어원서책	2	3.7	3	5.6	4	7.4
기타	2	3.7	-	-	-	-
무응답	13	24.1	18	33.4	23	42.6
합계	54	100.0	54	100.0	54	100.0

는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전자책으로 있는지 몰라서’, 2순위는 ‘어떤 것이 좋은 자료 인지를 몰라서’, 3순위는 ‘자녀에게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로 나타났다.

3.2.14 어린이 전자책의 주된 독서 분야와 자녀의 전자책 이용 선호도

어린이 전자책 중에서 주로 독서가 이루어지는 분야 1순위는 동화책(19명, 35.2%), 그림책(11명, 20.4%)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동화책과 그림책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로 역사책과 전기도 주요 독서 분야로 꼽혔다(〈표 12〉 참조).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54명은 자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해 29명(53.7%)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자신이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고 전자책이 자녀의 시력을 약화시키며 독서를 오래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인했다.

3.3 종합 분석

123명의 학부모 중 과반수가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63명의 전자책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로 종이책이 더 익숙하고 읽기 편하고 전자책은 눈이 피곤하며 전자책에 대해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준(2010)의 연구에서 전자책 비이용자들이 전자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용할 만한 콘텐츠의 부재, 전자책의 불필요함과도 일맥상통하여 여전히 전자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함께 매체의 익숙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전자책 이용 여부에서도 소극적이며 애매한 태도를 보여 전자책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에서의 불편함과 부담감이 장애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경로는 국내 전자책 사이트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전자책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 생활 및 독서,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 새로운 정보 획득 또는 학습 순이었다.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빈도는 1년에 1-2회 정도로 전자책 이용은 미미하였으며 연간 전자책 이용 권수는 3권 이하가 61.1%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용준(2010)이 우리나라 전자책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이용량이 평균 1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시간도 1시간 이하(39명, 72.2%)가 주를 이루어 긴 시간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자책 이용 이후의 독서량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로 인한 독서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 매체로 종이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종이책이 익숙하고 이해가 더 잘 되며 원하는 책의 종류가 많고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는 것이었다.

전자책 이용 기기로는 개인PC/노트북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전자책 단말기 구입은 여전히 미미하였다. 그래서 이용준(2010)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전자책 전용 단말기로 전자책의 구매 경향이 변해갈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그런 추세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자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콘텐츠 질보다 화면 구성으로 나타나 이는 내용보다는 이용의 편리성이 우선함도 보여주었다. 전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거나 전자책 전용기기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의 활용이 뒤쳐지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책을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서명 검색이 가장 많아서 학부모의 경우, 구체적으로 원하는 전자책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책 이용의 장점으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이 차지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필요성과 함께 다른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면과 전자책 이용 과정의 복잡함,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음을 주된 요인으로 꼽아서 종이책을 읽을 때만큼의 편안함과 용이함, 콘텐츠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전자책의 휴대성이 가장 극대화된 이용 편의성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준(2010)이 전자책의 장점으로 보관의 편리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책과 비교할 때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편의성도 떨어져 독서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많은 학부모가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본 학부모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신간 입수, 도서관 내 전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전자책 이용 공간 위치 및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 도서관

전자책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전자책 콘텐츠 개발 및 확충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행히 도서관의 전자책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대다수가 향후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밝혔고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전자책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는 편이었고 선택 기준으로 주제/장르, 학교 권장도서, 도서관 추천 도서목록을 주로 들었는데, 어린이 전자책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향후 전자책 선정이나 접근에 관한 참고 도구가 확충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어린이 전자책 중에서 주된 독서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동화책과 그림책, 역사책과 위인·전기로 조사되어 이 분야의 전자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과반수가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고 시력 약화와 장시간 독서 매체로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자녀의 전자책 이용을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이는 어린이의 전자책 이용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서관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전자책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자책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더 나아가 향후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전

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전문 도서관 1개, 학교도서관 2개와 전자책을 소장하지 않고 있으나 전자책 이용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1개, 총 5개 도서관의 초등학생을 둔 15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컴퓨터 이용, 전자책 이용 행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 행태, 어린이 전자책 선정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123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응답자의 도서관 방문 회수는 한 달 평균 5.47회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였으며 도서관에 직접 방문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대부분 컴퓨터는 필요한 경우에만 단시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과반수가 전자책 이용 경험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 종이책이 더 익숙하고 읽기 편해서였고 앞으로의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다.

둘째, 전자책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경로는 국내 전자책 사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이용은 저조하였으며 주된 이용 목적은 여가 생활 및 독서였다. 학부모의 전자책 이용 정도는 1년에 1-2회 정도, 3권 이하, 지속적으로 읽는 시간은 1시간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전자책을 이용하면서 독서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독서 매체로 종이책이 읽기 편하고 이해가 더 잘 되며 책의 종류도 많고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고 하였다.

셋째, 전자책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는 개인PC/노트북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여전히 독서 매체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콘텐츠보다는

화면 구성이 전자책 이용에 더 중요하였고 전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구매나 전자책 전용기기를 통해 주로 구매하였다.

넷째, 전자책의 서명 검색이 브라우징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자책 이용의 장점으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대출/반납, 멀티미디어 기능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면으로 책을 읽는 점, 복잡한 전자책 이용 과정 및 절차, 읽고 싶은 자료의 부재를 들었다.

다섯째,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부모가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이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특히 신간입수, 도서관 내 전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전자책 이용 공간 위치 및 크기, 전자책 콘텐츠의 양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 전자책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권유하겠다는 학부모가 과반수였으며 대다수가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밝혀 익숙하지 않은 전자책이 부담스럽지만 결국 활용할 줄 알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전자책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는 편이었으나 전자책을 고르는 것이 어려워 전자책 추천 목록이나 참고 도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어린이 전자책은 주로 동화책과 그림책, 역사책과 전기류를 읽는 편이었으나 자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해 과반수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전자책 이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적 출판사의 전자책 서비스에 견줄 만큼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인 전자책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가 전자책 이용을 경험하면서 종이책과 차별성을 실감하고 전자책이 자녀의 독서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통한 전자책 이용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면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상업적 출판사의 전자책 서비스에 견줄만한 화면 설계와 편리한 접근점 제공, 전자책 이용 과정이나 절차의 단순화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의 전자책 콘텐츠의 다양성, 최신성, 도서관 내 전자책 이용을 위한 PC의 수나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가시적인 지원을 보여주고 전자책이 다양한 독서 활동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편리한 수단임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확실히 노출시켜주고 깨우쳐줘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전자책을 함께 고르고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책의 선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사서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향후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담당하는 전문 사서를 둘 필요가 있으며 전자책 관련 전문교육과정도 준비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할

요소를 찾아내어 전자책 서비스가 도서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도서관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과 종이책 이용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모니카. 2011. 『전자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전자책 유통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http://www.e-kpc.tistory.com/attachment/cfile23.uf@137BCC3D4D86926B144573.hwp>>.
- 김현희, 강다혜. 2008.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효용성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245-264.
- 김효선. 2008.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남영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 남태우, 김진아. 2003.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4(2): 25-53.
- 배경재. 2011. 전자책에 대처하는 도서관의 자세. 『도서관문화』, 52(6): 33-37.
- 성동규, 박상호. 2005.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행태 조사 연구: 수용자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 93-119.
- 신정환. 2011. 전자책, 새로운 희망의 문 앞이다. 『도서관문화』, 52(6): 28-32.
- 아이티투데이. 2011. 국내 전자책 시장, 예상보다 빠른 성장, [cited 2011.8.8].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0858>>.
- 이경아. 2010. 『국내 어린이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용준. 2010. 한국전자책 시장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6: 213-250.
- 이재현. 2010. 출판과 미디어의 변신. 『전자책의 충격』. 사사키 도시나오 지음, 한석주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혜. 201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사례. 『도서관문화』, 52(6): 22-27.
- 장기영. 2011. 전자책 충격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서관문화』, 52(6): 16-21.
- 장혜란. 2006. 대학생의 웹기반 전자책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 233-256.
- 정연경. 2011. 전자책: 새로운 지식생태계의 확장에 관하여. 『Research Front』, 1: 5-27.
- 정종원. 2010. 대학생의 e-Book 이용실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8: 161-186.
- 정진한. 2009. 대학도서관 전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출 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13-133.
- 정진한, 박일중. 2007a.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관리와 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8(3): 31-58.
- _____. 2007b. 도서관을 통한 어린이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4): 323-344.
- 황금숙. 2006. 전자책의 독서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종이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47-62.
- Chief Officers of State Library Agencies. 2010. *COSLA: eBook Feasibility Study for Public Libraries. Final report*. [cited 2011.6.30].
 <http://www.cosla.org/documents/COSLA2270_Report_Final1.pdf>.
- Hellman, Eric. 2010. Libraries, Ebooks, and Competition. *Library Journal*, [cited 2011.8.15].
 <http://www.libraryjournal.com/lj/community/opinion/885871-274/libraries_ebooks_and_competition.html.csp>.
- Library Journal. 2010. *LJ Survey of Ebook Penetration & Use in U.S. Public Libraries*.
 <http://c0003264.cdn2.cloudfiles.rackspacecloud.com/Public%20Library%20Ebook%20Report_2.pdf>.
- Miller, Claire Cain and Julie Bosman. 2011. E-Books Outsell Print Books at Amazon. *New York Times*, [cited 2011.5.19].
 <<http://www.nytimes.com/2011/05/20/technology/20amazon.html>>.
- Thibaut, Kyle. 2010. Nicholas Negroponte: The Physical Book is Dead in 5 Years. *TechCrunch*, [cited 2011.8.6].
 <<http://techcrunch.com/2010/08/06/physical-book-dead/>>.
- Wilkert, Joe. 2009. Joe Wilkert's Publishing 2020 Blog: E-book survey results, [cited 2011.8.31].
 <http://jwikert.typepad.com/the_average_joe/2009/08/ebook-survey-results.html>.